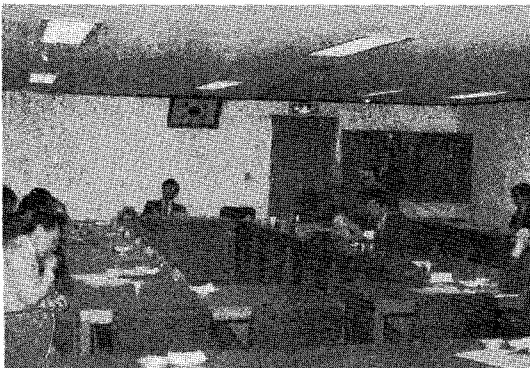


대한양계협회 소식

1984년도 본회 제3차 이사회 10월 11일 개최

— 신규회원 가입, 사업계획 일부 수정 및 규정 개정 —



△ 제3차 이사회

금년도 제3차 이사회가 10월 11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 12명에 대한 가입 승인이 있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이어 84년도 주요사업계획의 일부수정안과 초생추감별사 자격시험검정규격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서 미사료곡물협회 박영인지부장에게 농경제학 박사학위취득 기념패를 전달했다. 이어 박영인지부장의 「국내의 여건 변화에 따른 양계전망」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는 여기서 계열화작업이 가장 쉬운 분야가 브로일러업이고 다음으로 채란업이라고 말



△ 박영인 박사 학위취득 기념패 전달

했다.

이날 회의는 황인옥전무의 협회 주요업무 보고와 최근 양계산물 수입처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던 후 부의안건토의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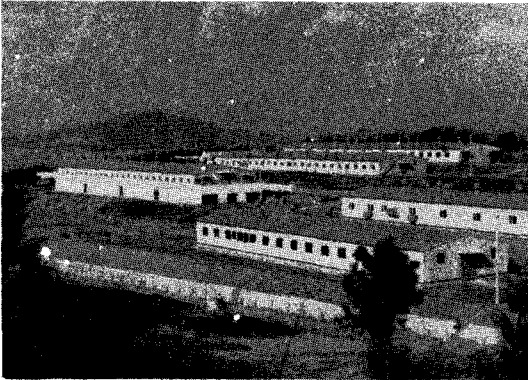
이날 신규가입된 회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용택(채란)	양홍식(채란)
전광석(채란)	김경구(채란)
최정묵(")	김상길(")
이오형(")	한승준(")
이설재(")	지자인(")
남광풍(부화)	이찬영(육계)

이날 이사회에 앞서 오전에 본회 사무실에서 10월 회장단회의가 개최되었다.

본회 닭 경제능력 검정소 준공

— 5 억원 들여 최신현대식 시설 갖춰, 준공식 11월 15일에 —



본회 닭 경제능력검정소가 안성에 세워졌다.

산란계 및 육용계의 경제능력검정을 통해 병아리의 자질을 향상하고 양계농가에 병아리선택의 지침을 제시하게 될 이 검정소는 총 4억 9천 8백 78만원을 들여 작년 10월에 착공, 1년 1개월만인 11월 15일 안성군 현장에서 그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이다.

본회 닭경제능력검정소는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중리 산72-1의 부지 11,410평(대지 9,286평, 임야 2,124평)위에 건평 1,142.5평 규모로 계사 7동, 사무실 및 부화실 각 1동, 관리사 2동, 창고 2동이 세워졌으며, 부화기, 환풍기, 케이지, 급수·급이기, 스크레파, 발전기 등을 시설해놓고 있다.

본회는 이 검정소 설립을 위해 축산진흥기금 3억 4천 6백만원과 김포검정소 부지 매각자금 등 1억 5천 2백 78만원의 자체자금을 확보, 지난 83년 6월 안성군에 부지를 마련하여 10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했다. 이어 검정소시축공사 공개입찰을 실시, <주>삼대건설(대표 남정규)이 맡게 되었으며, 10월 19일에 본회 회장단, 검정위원, 농수산부 관계관, 경기도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공식을 가진바 있다.

신축된 본회 닭 경제능력검정소는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검정계사의 경우 브로일러사(1), 육추사(1), 중대추사(2), 고상식(1) 및 스크레바식(2) 성계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육용계 2,500수, 산란계 5,000수의 검정능력을 가지고 있다.

산란계의 경우 육종회사와 종계·부화장으로 부터 출품된 닭을 500일만에 걸쳐 검정하게 되는데 육추율, 육성율, 성계생존율, 성성숙일령, 산란율, 산란지수, 난중, 사료요구율, 체중, 사료소비량, 경제성 등을 종합·검정한다. 또 육계의 1회검정기간은 8주로 년 2~3회 실시하며, 육추율, 육성율, 성장속도, 균일도, 사료요구율, 체중, 경제성 등을 검정한다.

한편 본회에서는 지금까지 도봉구 공동검정소에서 산란계 6회, 육용계 2회, 김포 검정소에서 산란계 11회, 육용계 11회 등 모두 산란계 17회, 육용계 13회의 검정을 실시하여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

또 검정소 주변공사를 위해 본회 임원 및 회원은 물론 관계당국 관계관, 학계 및 연구기관 인사, 업체 등 많은 양계인의 협조로 조경공사 등을 실시하였다. 본회 닭 경제능력검정소는 양계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양계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우리의 양계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 육계분과 활성화 대책 협의—

지난 10월 29일 본회 회의실에서 육계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육계 전망은 작년에 비해 물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소



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가격은 kg당 900~1000원대를 이루고 있으며, 크리스마스와 연말년시의 경기를 예상해 입추현상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초생추 가격은 200~230원 정도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내년도 육계병아리 생산 잠재력 검토 등 육계업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이 교환되었다.

육계분과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에서는 분과 위원장이 각 분회를 방문, 다수의 참석을 유도하는 방안과, 기금조성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토의되었다. 또 서울 중부지역회원을 중심으로 활성화하며 지부 회원들의 참석도 적극 추진기로 했다.

최근 육계업의 사육양상이 변화하면서 참석 회원들은 육계업자들이 더욱 단합하자는데 입을 모으고 가까운 시일내에 친목회 형식의 별도 모임을 갖기로 했다.

부산경남지부 친선체육대회

—우승에 덕계분회, 준우승에 동부분회—

제 7회 부산 경남지부(지부장 김중경) 친선 체육대회가 지부 회원, 영남지역 분회회원 등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17일 김해 공설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영남지역 회원과 양계관련산업종사자간의 친

목을 도모하고 영남지역 양계업 발전을 위해 78년부터 매년 실시해와 올해로 일곱번째를 맞은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지부 채란분과, 김해분회 등 10개 팀으로 구성하여 축구, 100m 달리기 등 9개 종목에 걸쳐 열띤 경쟁을 벌인결과 덕계분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 경기종목 ◇

축구, 100미터 달리기, 과자 따먹기, 출다리기, 씨름, 여자 공구르기, 어화등등 내사랑, 800미터 계주, 1500미터 달리기.

◇출전 팀 ◇

지부 채란분과, 지부 부화분과 김해분회, 덕계분회, 진영분회, 웅촌분회, 동부분회, 사료업체, 약품업체, 동우회.

◇ 경기결과 ◇

- 우 승: 덕계분회(회장 최덕호)
- 준우승: 동부분회(회장 최상용)
- 장려상: 채란분과(위원장 우원현)



전북지부 단합 체육대회 개최

—삼양사 전주 1 공장 잔디구장에서—

전북지부 회원단합 체육대회가 지부회원, 제란판매업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2일 삼양사 전주 제 1 공장 잔디축구장에서 열렸다.

전북지역의 많은 회원이 참가하여 양계인의

단결력을 보인 이번 체육대회는 축구, 배구, 줄다리기, 계주 등 4개 종목에 걸쳐 기량을 겨루었는데, 전 종목을 석권한 채란분과A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각 종목에서 고른 성적을 거둔 육계분과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 대회 임원 ◇

- 대회장 : 이한주
- 부대회장 : 최상기, 김철한
- 대회진행 : 정병운

◇ 경기 종목 ◇

축구, 배구, 줄다리기, 계주.

◇ 출전 팀 ◇

본부, 채란분과A, 채란분과B, 육계분과, 제란판매업자.

◇ 성 적 ◇

- 우 승 : 채란분과A팀 (팀장 홍용완)
- 준우승 : 육계분과팀 (팀장 박연수)
- 3위 : 채란분과B팀 (팀장 윤세창)
- 4위 : 제란판매업자팀 (팀장 왕금용)
- 5위 : 본부팀 (팀장 이영복)



임덕성국장 장관표창

— '84 축산진흥대회에서 —



(임 덕성 사무국장)

본회 임덕성사무국장은 지난 10월 18일 수원에서 개최된 제10회 축산진흥대회에서 농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날 축산유공자 포상은 공무원과 민간인 77명, 가축품질평회 입상자 및 단체 120명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경향신문에 항의

11월 6일자 경향신문 사회면에 '계란에 생물질잔류'라는 5단 기사가 게재되어 협회에서는 즉시 보도 경위를 조사하고 경향신문사에 항의하여 사과를 받은 바 있다.

전국 부화인대회 개최키로

— 대회추진 소위원회 구성, —

10월 24일 간담회서 —

최근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화업계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중계, 부화인 간담회가 전국 중계 및 부화업자가 모인 가운데 10월 24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 부화업계의 당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가운데 토론을 벌였으며, 전국 중계 및 부화인의 단결을 위해 11월 말경에 전국의 모든 부화 중계업자들이 모인 가운데 부화인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이의 준비를 위해 15명의 대회추진소



(박 준영 위원장)

위원회를 구성했다.

주요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병아리가격 올리기 경쟁을 자제하자.**

계속 가격을 올리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로, 적정선을 유지하면 입추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 **노계시세창구를 일원화하자**

노계보유수수와 출하시기를 정확히 협회(사무국장)에 알려 적정가격에 출하할 수 있도록 하자.

• **출하량을 숨기지 말고 정확히 알리자**

인근 부화장의 눈치를 보거나 소문에 따라 자기가 임의로 전망하여 출하하거나 자신의 출하량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바 이는 양계업 발전의 큰 저해요소다.

• **덤핑판매 행위를 뿌리뽑자**

가격하락기미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덤핑판매는 자신과 남을 동시에 해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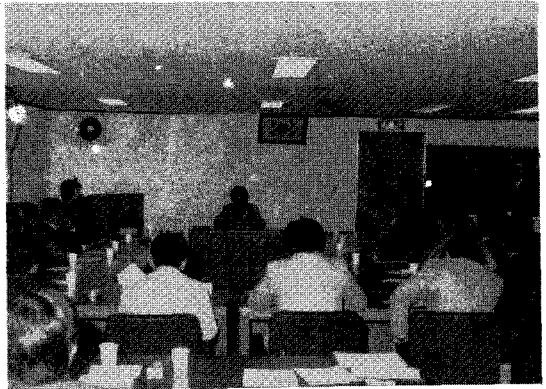
(대회추진소위원회)

• 위원장 : 박준영 (한협, 본회 부회장)

• 위 원 : 7개 원종계장 관계자 (진호, 한일, 신기, 광일, 고창, 홍성, 한협) 봉명부화장 (차상진), 유성농장 (류종래) 형제부화장 (주양수), 순흥부화장 (김용찬) 계유부화장 (이재식), 죽전부화장 (이순오), 대지농장 (김성경), 대전신기 (이전남)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요즈음 육계업자들이 단합이 잘 되는데 비해 부화·종계업자들은 아직도 단결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 대군종계장에서부터 소규모부화장에 이르기까지 능동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대회의 폭을 넓혀어려움을 이겨내자고 입을 모았다. 또한 앞으로는 모임을 주관하는 쪽에서도 문제점과 대책을 사전에 검토하여 토론시에 걸도는 얘기로만 끝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제 부화업계에 단결과 협동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 양계인의 생각이 이와같이 하나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전남지역 양계인단합 체육대회 성료

— 450여명참가, 가족별 디스코 대회도 —

제5회 전남지부 (지부장 김용찬) 체육대회가 지부회원, 유관 업체 대표, 도당국 관계관 등 4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28일 광주대성국민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의욕에 찬 생활리듬을 찾고, 회원간의 친목과 전남지역 양계인의 단합된 힘을 보이기 위해 열린 이번 체육대회는 14개팀으로 나뉘어 축구, 줄다리기, 릴레이 등 실력을 겨주하였으며, 특히 가족대항 디스코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KBS 광주방송



국과 MBC 광주문화방송국, 광주일보사 등에서 취재, 방송을 통해 보도함으로써 전남지역 양계인의 사기양양과 단결력을 과시하는 기회가 되었다.

◇ 경기종목 ◇

축구, 줄다리기, 릴레이, 가족 디스코대회

◇ 참가 팀 ◇

○ 회원팀

광주, 광산, 화순, 나주, 담양, 목포, 여수, 기타지역

○ 관련업체팀

사료업체, 제약회사, 도계장, 계란판매업자, 광주축협, 육계판매업자

◇ 종합전적 ◇

○ 회원팀

- 우 승 : 목포지역팀 (축구, 릴레이 1위)
- 준우승 : 담양지역팀 (줄다리기 1위, 릴레이 2위)
- 3위 : 광주지역팀 (축구 2위)

○ 관련업체팀

- 우 승 : 도계장팀
- 준우승 : 사료업체팀

○ 장려상 및 응원상 : 광주축협팀

한편 이번대회를 위해 찬조한 주요업체는 다음과 같다.

도계장처리 및 검사에 관한

세미나 개최

— 미농무성 어형선박사초빙

11월 27일, 29일 대구, 안양에서—

본회는 닭고기의 위생처리 및 품질향상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및 닭고기에 대한 인식제고로 소비확대를 추진키 위하여 농수산부와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의 후원으로 도계위생처리 및 검사에 관한 세미나를 오는 11월 27일(화)과 29일(목) 대구 및 안양에서 개최 할 예정이다.

도계검사원(수의사), 도계장 경영자,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국의 도계검사규정과 현황에 대한 강의 및 실습이 있을 예정인 이번 도

*전남지부 체육대회 찬조업체 명단

업 체 명	찬 조 액	업 체 명	찬 조 액
광 주 축 협	300,000	우 성 사 료	200,000
삼 양 사	200,000	퓨리나사료광주대리점	100,000
해 표 사 료	100,000	제일제당광주출장소	100,000
제일사료광주출장소	150,000	미원사료광주출장소	150,000
다 산 동 물 약 품	100,000	고 창 양 계 센 타	200,000
순 흥 부 화 장	200,000	천 안 중 원 농 장	100,000
육계증상인협의회	100,000	육계감탐상인협의회	200,000
신 흥 부 화 장	100,000	천호부화장광주출장소	타올 110매
(주)유한양행농축부	타올 100매		

계위생처리 세미나는 11월 27일(화) 오전부터 중부이남 지역의 관련 대상자를 위해 대구축협회의실에서 실시하고, 29일(목) 오전부터는 중부이북 지역 관계자를 위해 안양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강의를하고 효성식품(대표 안병진)에서 도계실습을 하게된다.

이밖에 제주(21일)와 전남·광주(23일), 부산(26일)지역에서는 간담회도 갖을 예정이다.

이세미나를 위해서 본회는 미국농무성 도계검사관 어형선박사(서울수의대졸, 전 조지아대교수)를 초빙하여 국내실질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전국의 도계장방문과 국내 도계위생을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도계산업발전을 위한 나름대로의 처방을 내릴예정이다.

이제 몇년후면 전세계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제적인 큰행사를 치루게 된다. 우리가 생산해 놓은 닭고기가 선진외국인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게 위생적인 닭고기생산에 박차를 가하여야 하는 문제를 놓고볼 때 이번 세미나는 매우 뜻있는 일이라 하겠다.

세미나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 시	장 소	실습장소
11.27(화) 10:00~17:00	대구축협회의실	도 계 장
11.29(목) 09:00~17:00	안양가축위생연구소	효성식품

10월 양계산업 기반조사요원 회의

— 초생추 출하량, 계산물가격동향 분석 —

전국 각 지역의 초생추출하량과 가격, 양계산물의 생산동향을 조사함으로써 양계산업의 안정에 기여코자 본회가 계속 실시해오고 있는 양계산업 기반조사요원회의가 10월 15일과 31일 두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10월회의에서는 초생추출하량과 가격동향, 육계물량 등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전반적으로 초생추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근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부화장의 실태에 대해 논의했는데, 10월 현재로 부화기 가동율이 50%에도 못미치는 지역이 많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조사요원들은 각 부화장 방문시마다 초생추가격 올리기 경쟁을 삼가하고 덤핑행위를 하지 말도록 중용하기로 했으며, 부화인의 살길은 전부화인의 합일된 단합 뿐이라는 점을 계속 설득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분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각 지역 회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체육행사 등 도지부 및 분회의 각종 행사시에는 본회와 긴밀한 연락이 오갈 수 있도록 했다.

송찬원 전축산국장 송별식

— 생산자단체장, 전무단과 함께 —



본회와 대한양돈협회(회장 전동용),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유윤수), 종축개발협회(회장 황영구)등 생산자단체에서는 송찬원 전축산국장 송별식을 지난 10월 22일(월)오후 6시 국립대반점(서부역 대왕빌딩)에서 가졌다.

이날 송별식에는 각 생산자단체의 회장과 전무단이 참석하여 재직기념패를 전달하고 전별회식을 가진 바 있다.